東亞日報
社長 金相萬 編輯局長 李東禧 論說委員 朴權相 編輯人 朴琫七 印刷人 崔昌星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139 (郵便番號110) 東亞日報社
交換代表 (22)5221 (23)5231 廣告問合 (23)6103 (25)1741 廣告申込 (27)6107 (28)6108 購讀申込 (23)6106 (27)6460
購讀料 月定 1,500원 1部 8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과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탄생! 20배 보장 알뜰보험 대한생명

金鍾泌·李厚洛·金振晩·朴鍾圭·李秉禧·吳源哲·張東雲·金鍾珞씨등9명 어젯밤에 풀려나

金鍾泌 前共和黨 총裁 등 9명 議員辭退 수리

李厚洛·金振晩·朴鍾圭·李秉禧·芮春浩·李宅敦·孫周恒·金祿永씨 포함

閔寬植국회의장비서실장은 3일 5·17이후 제출된 金鍾泌전공화당총재 등 9명의 國會議員辭職書를 수리, 辭職을 허가했다고 발표한. 9명의 국회의원은 金泳三·金鍾泌·李厚洛·金振晩·朴鍾圭(이상 무소속)·李秉禧(공화)·芮春浩·李宅敦·孫周恒(이상 신민)·金祿永씨(民主)이다. 이들의 사표 수리로 국회 의석 분포는 ▲공화당74명 ▲신민당63명 ▲유정회77명 ▲民主당1명 ▲무소속3명이 됐으며 의원수는 2백27석에서 2백18석으로 줄어들었다. 國會는 15일이내에 이들 辭職의 허부를 대통령에게 통보해야한다. 이들의 사직허가 여부에 따라 2명 또는 9명 전원의 보궐선거는 모두 8월중에 실시될 수도 있다.

閔의장은 이날 오전 9시 國會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辭職書가 제출된 것은 5·17이후 처음이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통감한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閔의장은 또 "辭職書가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辭職書가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辭職書가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辭職書가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閔의장은 또